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탄절/송년주일 】

세례입교식 ..... 신청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오랜 대강절기를 보내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들 마음의 말구유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첫 성탄절 목자들  
 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맛보았던 기쁨을 우리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평화의 씨앗을 심으라 한 해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의 은혜로 작은 씨앗들을 열심히 뿌렸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들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가지와 줄기를 피워 올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마1:21 ..... 인도자

♠ 교 독 문 ..... 57. 성탄절 ..... 다함께

♠ 영 광 송 ..... 3. 이 천지간 만물들이 ..... 다함께

대표기도 .....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 성가대

성경봉독 ..... 눅2:8-14 ..... 박옥순 집사

성탄칸타타 ..... 별을 따라서 ..... 성가대

1. 천사 노래하기를
2. 존귀하신 왕
3. 그가 다스리리
4. 고요한 그 밤
5. 와서 경배하라
6. 오 거룩한 밤
7. 대관식

말 씬 ..... 기쁨 · 평화 · 영광 ..... 김기석 목사

거둬 기도 ..... 다같이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356. 성자의 귀한 몸(4)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말구유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늘 태어나게 하십시오. 작은 아기의 음성같이 들리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이들을 몰라라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예배	1월 기도의 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인도: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김근종 권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송양진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근종 곽혜자	배삼순 문인옥

## 쿠오바디스, 교회?

‘세상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마침내 별이 되어 오신 예수여/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자체로/사랑의 시가 되신 아기여/살아 있는 우리 모두 맑은 마음으로/겸손하게 내려앉기를/서로 먼저 사랑하는 일에만 깨어 있기를/침묵으로 외치는 작은 예수여’(이해인, ‘성탄기도’)

예수가 세상에 온 지 2000년. 이제 지구촌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의 모든 나라가 서기력을 따를 만큼 기독교는 보편적인 문화 기반이 된 듯하다. 그러나 최근 어느 조사에 따르면 십자가는 생각만큼 널리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들에서조차 십자가는 교회에서보다 텔레비전에서 여배우나 모델들의 목걸이를 통해 더욱 익숙한 실정이다. 그에 비해 한국은 기독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야경을 장식하는 붉은 십자가의 군락은 세계 어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관이다.

지난 두 세기 동안 급성장한 한국의 기독교는 엄청난 문화혁명을 수반했다. 신분질서가 엄존했던 시대에 모두가 신의 자녀로서 평등하게 만나는 교회, 남녀노소가 한 장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획기적인 경험이었으리라. 또한 해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교회는 도시의 외롭고 고단한 심령들이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에 대해 교회가 값싼 위로를 주면서 교세를 확장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

교회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서양에서 중세의 수도원은 순례자들의 숙소, 학교, 병원, 자선기관 등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쟁 직후 수많은 고아들을 거두어들이는 곳이 교회 및 관련 단체들이며,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구제와 봉사 에 힘쓰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문화적 차원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웬만한 한국인들이면 어린 시절 성탄절에 교회에 한두 번쯤 가보았을 텐데, 그것은 단지 과자를 주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트리와 화려한 캐럴의 분위기 속에 벌어지는 성극과 성가대 공연은 문화가 궁핍했던 이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이었다. 한 해에 한두 번씩 예술제와 수련회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청소년들에게 교회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배양하는 대안학교였다.

그러나 미디어와 문화산업이 발달하면서 교회를 찾는 젊은이들의 발길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들은 또다른 문화의 혁신을 통해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 1980년대 후반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된 ‘경배와 찬양’은 여러 선교단체에서 유행하다가 이제 청년 예배의 기본 형식으로 정착했다. .... 예배가 멀티미디어 쇼의 성격이 짙어지는 흐름 속에서, 영상과 음향과 노래하는 사람들의 실력 등에서 어설픈 구석이 보이면 ‘은혜’가 반감된다. 그 이벤트는 인원이 많을수록 전문화된 달란트들을 골고루 활용할 수 있고, 재정이 풍부할수록 고급장비로 매혹적인 무대를 꾸밀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문화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결국 그것이 가능한 대형 교회에 점점 청년들이 몰리는 반면, 작은 교회들은 ‘인적 자원’을 계속 빼앗기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수많은 붉은 십자가들이 거의 다 그러한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는 영세한 교회의 것임을 생각하면 도시의 야경이 새삼 처연하게 다가온다. 그 작은 교회들에서 부르는 찬송은 희미하고 초라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미천함이 예수가 거한 삶의 자리였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규모와 물량으로 엔터테인먼트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겸허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성직자와 신도들이 있다. 가난한 동네에서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커뮤니티 센터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교회들이 있다. 음지의 이웃들을 묵묵히 섬기는 그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현란한 예배보다 한결 은총 충만한 ‘이벤트’일 것이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재하는 평강의 빛으로 성탄의 밤은 고요하고 거룩하다.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마지막 장면이 사뭇 충격적이었다. 예배실 강단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세워놓았는데, 다름 아닌 앙상하게 죽어 있는 나무 한 그루였다. 거기에 새로운 생명이 깃들기를 소망하는 상징이란다. 평범한 고목이 그토록 황홀하게 다가올 수가 없었다. 삶과 죽음의 초월을 암시하는 그 오브제는 보는 사람들의 남루한 영혼을 전율시킨다. 바로 그러한 존재의 역설적 신비를 축하하는 것이 성탄의 노래가 아닐까. 척박한 땅에 샤론의 꽃 한 송이로 육화한 그리스도, 응달에 깃드는 따스한 기별을 위하여 우리모두 노엘, 노-엘-

김찬호(한양대 문화인류학과)

##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이것을 실감하려면 자연 속에 파묻히면 된다. 폭풍우가 지난 후 나타나는 무지개의 영롱한 아름다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개미떼, 달빛 비치는 한밤의 고요... 하나님은 숨쉴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삶에서 부딪히는 큰 사건들 속에서도 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아기의 출산, 재정적인 위기 끝에 얻은 새로운 직장, 끔찍한 자동차 사고에서도 무사한 아이들, 우리를 보호하고 도우시는 기적의 순간만큼 그분의 존재를 실감할 때가 있을까.

이렇게 ‘커다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는 쉽다. 문제는 매일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평범한 일상은 의미를 얻게 된다. 설거지나 빨래가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신문이나 편지를 가지러 나갔다가 이웃에게 보낸 미소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계기가 된다.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해 전부 아셨다. 우리의 날을 정하신 그분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직접 관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미치지 못할 만큼 사소한 일도 없다.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잠시도 따분할 틈이 없을 것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작아지셔서 우리 생활의 사소한 부분에 눈 맞추어 주신다.

- 「내겐 너무 작은 하나님」 / 브루스 & 스탠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성가대장 : 한상의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한상의 정영선 김용진 박효선  
 김준호 곽혜자 박규석 박경선 정복순 김정길 최숙화 백승민 정완수  
 김재광 임 영 정경례 박정숙 임보람 최인환 박재실 길민수

### 월정헌금:

이지훈 윤성종 김윤정 조항범 오현정 표명화 김창원 정지은 전영규  
 김경수 박정석 고숙이 김창경 이증자 이은자 박병규 이호원 이용희

### 감사헌금:

김정섭 김미순 표명화 김용길 최영혜 장성호 홍순구 안홍숙 김종훈  
 안경숙 김 원 고사일 최영선 김창원 한상의 정영선 김명순 이교영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성탄절** :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되살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세례입교** : 오늘 세례받은 분들과 입교하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유아세례자 - 정채연 정채인 장하연 양인하 박종빈  
세례입교자 - 하재두 엄순임 박성면 정원석 공재량 이해동 권현숙 안 훈
3. **임원회** : 예배 후에 12월 임원회로 모입니다.
4. **성탄절 오후 행사** : 파키스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와 친교모임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5. **신천임원교육** : 중구용산지방회에서 주관하는 신천임원교육이 26일-27일 저녁 6시 30분에 상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당회에서 신천집사로 천거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송구영신예배** : 31일(토) 오후 11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립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로 한 해를 돌아보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7. **신년감사예배** : 2006년도 새해 감사예배를 1월 1일(주) 11시에 온 교우들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없습니다.
8. **교사모집** : 새해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시오.
9. **신앙실천** : 해외와 군대에 가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편지나 선물을 전하도록 합시다.  
\* 식당 봉사 : 예루살렘 속  
\* 헌화 : 김명순 권사 (시어머니 추모)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